

주간 통일정세

2017-0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211	최일 신임 영국주재 북한 대사, 공식 활동 개시(연합뉴스)
		김정일 생일 만 '216사단, 北속도전 핵심부대(연합뉴스)
		北신문, 뉴욕서 김정일 생일 축하 음악회 개최(연합뉴스)
		北김정일 생일 기념 얼음축전에 'ICBM 조각상' 등장(연합뉴스)
		北매체 "김정일 정월대보름 쇠도록 했다"...민속 강조(연합뉴스)
	212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선군정치 찬양 보고서 발간(연합뉴스)
	213	北김정은 이틀 머물며 직접 '북극성 2형' 발사준비 지휘(연합뉴스)
		北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어디로?...'북극성 2형' 발사에 불참(연합뉴스)
		北 중앙TV, '북극성 2형' 발사 영상 공개(연합뉴스)
		北 올림픽위 "국제사회 제재로 체육 발전 장애" 주장(연합뉴스)
	214	北김정은 이북형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서 독침 맞고 피살(연합뉴스)
		北김정은 미사일발사장 수행 4인은 모두 '블랙리스트'(연합뉴스)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백두산밀영 결의대회'(연합뉴스)
		北 함북 수해 구호물자 여명거리·해저호텔에 전용(연합뉴스)
		北 북극성 2형 발사 자축...김정은 '해강국 충정' 띄우기(연합뉴스)
	215	北 김정은, 부친 김정일 생일 75돌 중앙보고대회 참석(연합뉴스)
		김정남 여동생 김설송 '감금살'...아들 한솔 소재불명(연합뉴스)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 철저한 감시 속 北 거주(연합뉴스)
		피살된 北김정남의 가족 어디에 있나...마카오 거처엔 '정적만'(연합뉴스)
		고사총 처형 장면 본 北 간부들 악몽에 시달려(연합뉴스)
		'암살 배후' 유력 北 정찰총국, 해외공작 컨트롤타워(연합뉴스)
		北 공식 매체, 김정남 피살 배후 지목에 '침묵'(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북극성 2형' 발사, ICBM 시험발사 예고탄"(연합뉴스)
	216	北 김정은, 김정일 생일 75돌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최룡해, 김정일 참배행사 불참...통일부, 신변이상설은 성급(연합뉴스)
		'최천설' 北오일정, 17개월 만에 공개활동 재개(연합뉴스)
		北 정찰총국, 2009년 출범 후 여성공작원 급증(연합뉴스)
		대표전화도 무응답...김정남 살해 후 말레이 北대사관 '침묵'(연합뉴스)

경제	217	김정남 피살소식 속 평양은 ‘불꽃놀이’…北TV 생중계(연합뉴스)
		통일부, 北한훈일 ‘김정남 암살 키맨’ 보도에 “확인 필요”(연합뉴스)
		北정찰총국, 말레이·싱가포르·인니서 최대 해외조직 운영(연합뉴스)
214	캄보디아 북한식당 줄폐업에 김치납품도 막혀…제재 여파(연합뉴스)	
	대북제재에도 작년 북중무역액 7% 늘었다(연합뉴스)	
사회	214	아사히, 북 나선지구에서만 옮겨올 아사자 300명(연합뉴스)
문화	215	中, 北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북한산 석탄 1만6천t ‘퇴짜’(연합뉴스)
외교 국방	211	주북 러 대사 “북한, 미국과의 양자대화 기대해선 안 돼”(연합뉴스)
	212	‘심상찮은’ 중국내 대북기류…미중관계 고려해 추가 대북제재 할 듯(연합뉴스)
		中관영매체들, 北미사일 발사 주목…트럼프에 시위하나(연합뉴스)
		아베, 北 탄도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트럼프, 日 100% 지지(연합뉴스)
		프랑스, 北 미사일발사 규탄…국제사회 단결대응해야(연합뉴스)
		北, 사거리 500km 미사일 1발 발사…ICBM 아닌 노동급(연합뉴스)
		北, 음속 10배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 발사…고체엔진 장착한 듯(연합뉴스)
	北, 무수단 성능개량 지속…작년 6월보다 100km 더 날아(연합뉴스)	
	213	美상원 가드너, 트럼프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북조치 주문(연합뉴스)
		美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 미사일 발사 北에 곧 신호 보낼 것”(연합뉴스)
		北 “美 핵불벼락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지중·지속”(연합뉴스)
		중국, 北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위반…美와함께 해결 노력(연합뉴스)
		러시아 의원들, 北미사일 발사는 도전…유엔안보리 결의에 저축(연합뉴스)
		러 외무부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발적 무시”(연합뉴스)
		유럽, 北 미사일 발사 묵과 못해…국제사회 단호히 대처(연합뉴스)
		한미일, 유엔 안보리에 ‘北 미사일’ 긴급회의 요청…13일 열릴 듯(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긴급회의…한국시간 14일 오전 개최(연합뉴스)
		나토 사무총장 “북한,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해야”(연합뉴스)
		北, 국제기구에 ‘북극성 2형’ 발사 사전통보 안 해(연합뉴스)
		北,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세 핵전략무기(연합뉴스)
	北미사일, 고체엔진에 100여대 발사차량…선제타격 어려워져(연합뉴스)	
北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 2형’이란?...신형 IRBM(연합뉴스)		
214	美, 北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확장억지제공 포함 동맹 철통방어(연합뉴스)	
	美국방부,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모든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트럼프,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아주 강력히 다룰 것(연합뉴스)	
	中, 北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논의 참여하겠다(연합뉴스)	
	中관영언론 잇단 북한비판 주목…“北미사일기술 구식” 평가절하(연합뉴스)	

	일본, 북한 미사일 방어 강화...상시요격 체제 추진(연합뉴스)
	아베, 한미일에 중국과도 연대해 북미사일 대응할 것(연합뉴스)
	유엔총장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만장일치 규탄...‘추가 중대조치’ 경고(연합뉴스)
	우크라이나, 北탄도미사일 발사 비난...“핵·미사일도발 중단하라”(연합뉴스)
	주스위스 北대사, 미사일발사는 자위조치...안보리 규탄에 반발(연합뉴스)
	北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준비에 5분...사정 최소 1200km(연합뉴스)
	日방위상 “北발사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한 신형 가능성”(연합뉴스)
	中전문가 “북극성 2형, 북한 보유 탄도탄 중 실전능력 최고”(연합뉴스)
	美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새 성능’ 갖춘 것으로 평가(연합뉴스)
	국정원, 北미사일 89도로 발사...바로 쏘면 사거리 2천km 이상(연합뉴스)
	北 ICBM 수준은...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만 남았다(연합뉴스)
	北 무한궤도형 이동발사차량, 주력전차 ‘선군호’ 개량(연합뉴스)
215	美국무부, 北김정남 피살 사건에 반응 자제(연합뉴스)
	美정부, 北요원들이 김정남 살해한 것으로 강하게 믿어(연합뉴스)
	中 김정남 피살에 北집정시대 병력 1천명 증파(연합뉴스)
	中, ‘김정남 피살’ 일부보도 삭제·차단...보도통제중(연합뉴스)
	日관방 “김정남 피살, 일본 안보에 별다른 영향 없을 것”(연합뉴스)
	北, 안보리 미사일 규탄 성명에 “전면 배격” 반발(연합뉴스)
	英 외무부, 탄도미사일 발사에 北대사 불러 항의(연합뉴스)
216	中, 김정남 피살사건에 ‘속았어’...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연합뉴스)
	中외교부, 김정남 피살 파문에도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연합뉴스)
	말레이 부총리 “김정남 시신, 철차뺐아 북한에 인도할 것”(연합뉴스)
217	美상원의원들,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리(연합뉴스)
	트럼프, 北 정말정말 중요한 사안...어떻게 할지는 말할 필요 없어(연합뉴스)
	美의원 “北 김정남 암살했다면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연합뉴스)
	中훈춘-北나진-中닝보 연결 육로·해상노선 재개(연합뉴스)
	러 법원 국경수비대원 공격한 北선원 2명에 2년6개월 징역형(연합뉴스)
	한·호주 등 중견 5개국 “北,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저해”(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02.13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공개활동		
02.15	김정일 생일 7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리명수, 박영식,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김영철, 최부일, 로두철, 리용호, 김수길,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김영대, 리기석, 차상보, 윤길상	
02.16	김정일 생일 75주년 경축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리명수, 박영식,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김영철, 최부일, 조연준, 리병철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2. 13.

■ 北 김정은, 이틀 머물며 직접 '북극성 2형' 발사준비 지휘(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준비 현장에 이틀간 머물며 직접 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13일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이뤄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관련 기사에서 김정은이 “위험천만한” 탄도미사일 조립 현장을 찾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무려 이틀간에 걸쳐” 함께 머물렀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북극성 2형 개발사업 정형(과정)을 보고받으시고 시험발사 날짜를 몸소 정해주시였으며 그 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고도 밝힘.

2017. 2. 15.

■ 北 김정은, 부친 김정일 생일 75돌 중앙보고대회 참석(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 7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함.
-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 평양방송은 15일 평양체육관에서 당·정·군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대회에 김정은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보도함.
- 이밖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김기남, 최태복, 김평해, 오수용, 로두철, 조연준, 리용호, 리병철, 리명수, 박영식, 리수용, 리만건, 김영철, 최부일, 김수길 등 당·정·군의 북한 지도부가 주석단에 총출동함. 그러나 최근 계급이 강등되고 국가보위상의 자리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의 모습은 주석단에 보이지 않았음.

2017. 2. 16.

■ 北 김정은, 김정일 생일 75돌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광명성절)인 16일

-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보도함.
 -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최태복, 리명수, 박영식,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김영철, 최부일, 조연준, 리병철 등 당·정·군의 북한 지도부가 수행함. 최근 계급이 강등되고 국가보위상의 자리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참배 행사에도 등장하지 않았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2. 11.

■ 최일 신임 영국주재 북한 대사, 공식 활동 개시(연합뉴스)

-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 후임으로 임명된 최일 신임 대사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11일 파악됨.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최일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9일 엘리자베스 2세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영국) 여왕에게 신임장을 봉정(문서를 받들어 올림)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다”고 강조함.

2017. 2. 13.

■ 北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어디로?...‘북극성 2형’ 발사에 불참(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부대를 총괄하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12일)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과 중앙방송, 노동신문, 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한 평북 구성시 소재 방현비행장에서의 북극성 2형 발사장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음.
- 정부 당국자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지난번(인민무력성) 행사 때도 나오지 않고 어제(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 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면서 “전략군사령관 교체나 그의 신상의 변화에 대해선 나오는 얘기가 없다”고 설명함.

2017. 2. 14.

■ **北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서 독침 맞고 피살(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힘.
- 김정남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짐.
- 김정남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프랑스에 유학 중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22) 군의 신변 역시 위험에 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北김정은 미사일발사장 수행 4인은 모두 '블랙리스트'(연합뉴스)**

-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할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행한 간부 4명 모두가 각종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됨.
- 북한 매체들은 지난 13일 김정은의 북극성 2형 발사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 정승일 동지, 장창하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국방과학 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고 밝힘.
- 호명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은 북한 군수공업 분야의 핵심 관계자로, 전원이 유엔 또는 한·미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음.

2017. 2. 15.

■ **김정남 여동생 김설송 '감금살'...이들 한솔 소재불명(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독살된 가운데 이복 여동생 김설송이 감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남 여동생인 김설송이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노동당 서기실에서) 힘을 쓰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연관이 있어 모처에 감금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힘.
- 김정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성혜림 사이에 태어났고, 김설송은 김정일과 그의 둘째부인 김영숙 사이에 태어나 두 사람은 이복 남매지간임.

■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 철저한 감시 속 北 거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것으로 전해진 이복형 김정남(46) 말고도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는 친형 김정철(36)이 있음.
- 김정일의 아들 세 명 중 김정남은 본처인 영화배우 출신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정은과 김정철은 세 번째 부인인 재일교포 출신 무용수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남. 정부 당국자는 15일 “김정철은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김정철은 북한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한 고위급 탈북민은 “김정철은 감금생활까지는 아니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다”며 “그러나 경호 명목으로 보위부 요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김정철의 일거수일투족을 김정은에게 보고한다”고 밝힘.

■ 피살된 北 김정남의 가족 어디에 있나…마카오 거쳐엔 ‘정적만’(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아들 한솔씨 등 가족의 행방에 관심이 쏠림.
- 김정남 피살이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라면 김정남의 가족도 제2차 피해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피살 소식 직후 마카오로 향한 연합뉴스 기자가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김정남씨의 둘째 부인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딸 김모 양이 살았던 마카오 시내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를 찾았지만, 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함.

■ 고사총 처형 장면 본 北 간부들 악몽에 시달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반당·반혁명분자’로 지목된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처형되는 끔찍한 장면에 대한 증언이 나왔음.
- 연합뉴스가 15일 탈북자 단체인 북한전략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들은 이 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김정은이 고안한 고사총 처형을 지켜본 간부들은 심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함.
- 탈북자단체인 북한전략센터와 NK위치,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김정은의 인권말살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비롯해

엘리트 출신 탈북민 6명의 인터뷰를 진행함. 이들 대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역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고사충 처형과 같은 잔혹한 처벌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함.

2017. 2. 16.

■ 최룡해, 김정일 참배행사 불참...통일부, 신변이상설은 성급(연합뉴스)

- 통일부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광명성절)인 16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신변이상설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이 전날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참배 행사에도 등장하지 않은 배경을 묻자, “최룡해는 작년에도 안 나왔다”며 이같이 말함.
- 이 당국자는 “최룡해는 2월 1일 행사에도 참석했다”며 신변이상 가능성을 낮게 봤음.

■ ‘좌천설’ 北오일정, 17개월 만에 공개활동 재개(연합뉴스)

- 한때 ‘좌천설’이 나돌았던 대표적 항일빨치산 2세인 오일정 전 노동당 군사부장이 17개월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를 과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혁명 1세대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3남 오일정이 1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수행단에 포함됨.
- 중앙통신은 이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포함 수행원 13명 명단을 발표했으나 오일정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일정의 구체적인 직함은 확인되지 않았음.

2017. 2. 17.

■ 통일부, 北한훈일 ‘김정남 암살 키맨’ 보도에 “확인 필요”(연합뉴스)

-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을 암살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북한 무역상인 한훈일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나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함.

- 앞서 국내 한 매체는 우리 정보당국이 한훈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무역상이 김정남 암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2. 14.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백두산밀영 결의대회'(연합뉴스)

-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그의 '고향'인 백두산 지역에서 결의대회 등 기념행사를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4일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상,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산 밀영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밝힘.
- 북한은 백두산 일대인 양강도 삼지연군(郡)에 있는 이른바 '백두산 밀영(密營)'을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하고 있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2. 11.

■ 김정일 생일 탄 '216사단', 北속도전 핵심부대(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산하에 '216사단'을 조직해 속도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1월 말 현재 216사단 혜산-삼지연 철길건설려단(여단) 남포시련대(연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몇 년이 걸려야 할 로반(노반), 차굴(터널), 소구조물 공사를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보도함.
- 해당 돌격대는 북한의 2인자로 군림하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청년동맹의 산하 조직임.

■ 北신문, 뉴욕서 김정일 생일 축하 음악회 개최(연합뉴스)

-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음악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고 북한 매체가 선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4일 미국 뉴욕에서 우륵 교향악단 단장인 재미동포 리준무가 지휘하는 ‘2월의 봄’ 음악회가 진행되었다”고 연주회 사진 3장과 함께 짧게 보도함.
- 신문은 “유엔주재 조선 상임대표부 일군(일꾼)들과 가족들, 재미동포들과 미국인들로 초만원을 이룬 머킨 콘서트홀 극장에서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관현악 ‘장군님께 영광을’, ‘백두의 말발굽 소리’, ‘나는 알았네’,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 음악들 그리고 외국 명곡들이 연주되었다”고 밝힘.

■ 北 김정일 생일 기념 얼음축전에 ‘ICBM 조각상’ 등장(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얼음축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형상화한 얼음조각상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개최 중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라는 주제의 얼음조각축전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날로 변모되어가는 공화국의 현실을 담은 특색있고 다양한 얼음조각들이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를 펼쳐놓고 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백두혁명강군’이라는 제목의 전시대에는 북한 매체가 지난해 3월 공개했던 ICBM급 KN-08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 핵탄두 추정 모형’ 조각상이 포함됐고, 얼음조각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소탄’이라는 검은 색 글씨도 보임.

2017. 2. 12.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선군정치 찬양 보고서 발간(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2월 16일)을 나흘 앞두고 그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12일 ‘기념보고서’를 통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는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시였다”며 “우리의 국방공업은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발전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보고서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데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시였다”며 북한이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1,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전함.

2017. 2. 13.

■ 北 중앙TV, '북극성 2형' 발사 영상 공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13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함.
- 영상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움직이는 장면과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창공으로 흰 연기를 내뿜으면서 솟아오르는 장면 등 약 4분 13초 분량임.
- 앞서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함.

2017. 2. 14.

■ 北, 함북 수해 구호물자 여명거리·해저호텔에 전용(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해 국제사회가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한 구호물자와 자금을 전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해 함경북도의 큰물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한 자금과 물자는 현지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지붕을 씌우는 데 (일부) 이용됐을 뿐 나머지는 전부 여명거리와 원산시 해저호텔 건설에 돌렸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지원물품인 통조림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전부 전쟁예비물자로 보관했고, 러시아가 지원한 디젤유 전량도 군수물자로 빼돌림.

2017. 2. 15.

■ '암살 배후' 유력 北 정찰총국, 해외공작 컨트롤타워(연합뉴스)

- 북한의 주요 대남도발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 국가정보원은 1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정보 당국이 약 5년 동안 지속적인 암살 기회를 엿보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함.

- 정찰총국은 2009년 2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의 대남·해외 공작 업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범함. 정찰총국은 이후에 2009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주도한 기관으로 알려지면서 대남도발의 지휘 소로 떠올랐음.

■ 北 공식 매체, 김정남 피살 배후 지목에 '침묵'(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남 김정남의 독살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는 김정남의 피살 소식이 긴급뉴스를 통해 알려진 지 12시간이 넘는 15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김정남이 '최고 존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이지만 권력다툼 끝에 밀려나 해외를 전전한 백두혈통의 '겉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일단 무시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2017. 2. 16.

■ 北 정찰총국, 2009년 출범 후 여성공작원 급증(연합뉴스)

- 김정남 살해 용의자에 여성 2명이 포함된 가운데 해외 비밀공작과 도발을 총괄하는 북한군 정찰총국이 지난 2009년 통합 출범한 이후 여성공작원 인원을 늘리고, 이들의 활동 범위도 넓혔다는 주장이 제기됨.
- 임명을 요구한 정찰총국 출신 탈북민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9년 (기존의) 공작기구들을 정찰총국으로 통합했을 때 관련 임무와 인원 등을 확대했다”며 “이때 여성공작원 수와 활동 영역도 확장했다”고 밝힘.
- 매체는 늘어난 여성공작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과거에도 김현희, 원정화 등 북한 여성공작원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강조함.

■ 대표전화도 무응답...김정남 살해 후 말레이 北대사관 '침묵'(연합뉴스)

-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벌어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각국 언론사 취재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과 달리, 쿠알라룸푸르 시내 부킷 다만사라

에 소재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사건 발생 나흘째인 16일 현재까지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스타가 전함.

- 김정은을 배후로 지목하는 언론보도에 북한 당국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

■ 김정남 피살소식 속 평양은 ‘불꽃놀이’…北TV 생중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의 피살이 전세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북한 평양에서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성대하게 벌어짐.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정일 생일을 맞아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일대에서 진행된 ‘축포’(불꽃놀이) 발사 장면을 20여분간 생방송함.
- 중앙TV는 “광명성절을 맞이한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오른다”며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더해주며 축포가 무수히 터져 오른다”고 전함.

2017. 2. 17.

■ 北정찰총국, 말레이·싱가포르·인니서 최대 해외조직 운영(연합뉴스)

-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 규명이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건 초기 주목을 받았던 북한의 대남 해외 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최대 해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와 주목됨.
- 현지 매체 더 스타 온라인은 17일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정찰총국의 최대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정찰총국 고위급 간부와 요원들은 엔지니어나 건설 기술자문, 식당 운영자 등으로 신분을 숨기기도 한다고 이 매체는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2. 11.

■ 北매체 “김정일, 정월대보름 쇠도록 했다”…민속 강조(연합뉴스)

- 북한 매체는 11일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월대보름을 쇠도록 배려했다며 명절을 체제 선전에 활용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유구한 역사 속에 빛나는 민족의 정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이) 정월대보름의 유래와 풍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달력이나 탁상 일력에 이날을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모두가 즐겁게 쇠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민속을 버리면 민족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이 있어 정월대보름 명절은 우리 인민의 정서적인 생활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주장함.

2017. 2. 13.

■ 北 올림픽위 “국제사회 제재로 체육 발전 장애” 주장(연합뉴스)

- 북한의 올림픽위원회가 일본 삿포로(札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자국 체육 발전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음.
- 강릉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은 13일 북한 주재 AFP통신사와 APTN(AP통신 영상부문 계열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2016년 3월에는 결의 제2270호를 강압채택하고 제재항목에 사치품들을 추가하면서 터무니없게도 대중체육기재들까지 포함시키었다”고 주장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강 부서기장은 또 일부 국가들이 제재 명목으로 스키, 요트, 등산화 등 스포츠용품까지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스포츠 기구의 대북 스포츠 지원금 송금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2017. 2. 14.

■ 北, 북극성 2형 발사 자축…김정은 ‘핵강국 총장’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지난 12일 이뤄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자축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자 신문 2면에 ‘2월의 불뢰성’이라는 제목으로 북극성 2형 시험발사의 ‘성공’을 자찬하는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온 나라가 환희에 넘쳐 있다”면서 이번 발사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과 연관 지었음.

2017. 2. 15.

■ 조선신보 “北 ‘북극성 2형’ 발사, ICBM 시험발사 예고탄”(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예고탄”이라고 주장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조선의 ICBM이 시험 발사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는데도 미국의 새 행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중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2. 14.

■ 캄보디아 북한식당 줄폐업에 김치납품도 막혀…제재 여파(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 우방인 캄보디아에 진출한 북한식당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음.
- 14일 관련 업계와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영업하던 북한식당이 줄줄이 폐업한 데 이어 현지 상가를 통한 북한 김치 판매사업도 중단됨.
-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대사관과 한인회의 북한식당 이용자제 권고나 불매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대북제재에도 작년 북중무역액 7% 늘었다(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중 무역액이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58억2천만 달러(한화 6조7천억 원)로, 전년도보다 약 7.3% 늘어났다”고 밝힘.
- 작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약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가량 증가했고, 수입액도 약 31억 달러로 8.3% 늘었다고 방송은 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2. 14.

■ **아사히, 북 나선지구에서만 올겨울 아사자 300명(연합뉴스)**

- 북한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렇듯 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함.
- 이달 북한 동북부 나선지구에 다녀왔다는 중국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겨울에 나선지구에서만 300명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현지 지인에게서 들었다고 전함.
- 북한은 작년에 풍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나선지구 주민이 받는 배급식량은 1인당 하루 300g 정도에 불과함. 암시장에는 중국산 쌀이 나돌고 있지만, 가격이

치솟고 있음.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도 줄었다고 함.

2017. 2. 15.

- **中, 北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북한산 석탄 1만6천 ‘퇴짜’(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다음 날 대규모 북한산 석탄에 대해 퇴짜를 놓고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 이를 볼 때 최근 중국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산 석탄 거부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15일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는 지난 13일 북한산 석탄 1만6천296t에 대해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원저우 세관은 조만간 이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 보낼 예정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2. 13.

- **美상원 가드너, 트럼프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북조치 주문(연합뉴스)**
 - 미국 상원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비롯한 일련의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고 밝힘.
 -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 미사일 도발에 “머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돼선 안 된다는 또 다른 예”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정부는 즉각 일련의 대북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우선 미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시킨 ‘북한제재법’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함.
- **美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 미사일 발사 北에 곧 신호 보낼 것”(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고문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함.
 - 밀러 정책고문은 미 CBS의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그(트럼프 대통

령)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우리가 동맹국들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말함.

- 밀러 정책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방미 중이던 아베 총리가 11일 밤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을 거론하며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조함.

■ 北 “美, 핵불벼락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지중·지속”(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을 향해 “자중·지속하라”고 주장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핵 및 미사일(미사일) 위협'을 넘불(염불)처럼 외위대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 핵전략 자산들을 비롯한 각종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변함.
- 중앙통신은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며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받아야 할 리유(이유)란 없다”며 목소리를 높임.

2017. 2. 14.

■ 美, 北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확장억지제공 포함 동맹 철통방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확고한 동맹 방어 의지를 밝힘.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임.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 미사일이 미국, 한국, 일본의 도시들을 타격하기 위한 핵무기 운반용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고 비판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 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새 고체연료 전략 미사일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군 당국도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평가함.

■ 美국방부,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모든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미국은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철통같은 태세로 방어하고 있다고 밝힘.
-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 엄중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트럼프,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아주 강력히 다룰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힘.
- 국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종합적인 동맹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확장억지력 제공을 포함해 동맹 방어에 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힘.

2017. 2. 15.

■ **美국무부, 北김정남 피살 사건에 반응 자제(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그 보도를 봐서 알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물어보길 바란다”고만 밝힘.
-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언급 자체를 삼간 것임.

■ **美정부, 北요원들이 김정남 살해한 것으로 강하게 믿어(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 요원들이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을 살해한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 통신은 이어 김정남이 어떻게 살해됐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임.

2017. 2. 17.

■ 美상원의원들,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라(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임.
- 미 상원과 하원이 최근 ‘북핵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해 북핵 위협에 대한 초강경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원 ‘미사일방어코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북 경제제재 주무 부처인 재무부에 연명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함.
- 이번 연명 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은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와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톰 텔리스(노스캐롤라이나),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등 6명으로, 이들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그 앞으로 서한을 발송함.

■ 트럼프, 北 정말정말 중요한 사안...어떻게 할지는 말할 필요 없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정보가 워싱턴포스트(WP)에 나왔고, 뉴욕타임스(NYT)에도 나왔다”면서 “만약 내가 중동 문제를 다룰 때, 또 북한처럼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really really important subjects)을 다룰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함. 그러면서 “이런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방미 중이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다.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

■ 美의원 “北, 김정남 암살했다면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을 암살한 것으로 확인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요건이 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내에서 제기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김정은이 이복형을 암살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7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포 의원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으로 드러난다면 그간 북한 정권이 저지른 테러 목록에 ‘새로운 행위’가 추가되는 셈이라는 견해를 밝힘.

나. 북·중 관계

2017. 2. 12.

■ ‘심상찮은’ 중국내 대북기류…미중관계 고려해 추가 대북제재 할 듯(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오던 중국이 12일 갑작스러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당황해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주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통화 등으로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중국에 부담스러운 북한 문제가 또다시 터졌기 때문임.
-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국들도 건설적인 접촉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유관 당사국이 각자 책임을 확실히 떠안고 최대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해 오랫동안 편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음.

■ 中관영매체들, 北미사일 발사 주목…트럼프에 시위하나(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은 12일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음.
- 이들 매체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 매체인 환구망(環球網)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환구망도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2017. 2. 13.

■ **중국, 北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위반…美와함께 해결 노력(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경황(耿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힘.
- 경황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관련성에 대해선 “사드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별도로 봐야 한다”며 일축함.

2017. 2. 14.

■ **中, 北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논의 참여하겠다(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 경황(耿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회원국 간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 경황 대변인은 북 도발과 관련 필요하다면 추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언론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 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일단 다른 국가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함.

■ **中관영언론 잇단 북한비판 주목…“北미사일기술 구식” 평가절하(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연이틀 북한을 겨냥한 거친 비판을 내놓았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 기술로 인해 중국의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평론가 쑹중평(宋忠平) 인터뷰를 게재함.
- 중국에선 민영매체는 물론 관영매체도 허락받지 않은 채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을 뿐더러 비난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는 점에서, 관영 매체들의 이런 보도태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전조’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2017. 2. 15.

■ 中 김정남 피살에 北접경지대 병력 1천명 증파(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되자 중국군이 북중 접경지역에 병력을 증파했다고 홍콩 동망(東網)이 15일 보도함.
- 홍콩의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이 돌발상황에 대비해 북중접경 지역에 1천명의 군부대 병력을 증파했다고 전함.
- 센터는 군부대 주둔지 주변 주민들의 전언을 빌어 중국군이 김정남 피살 소식이 전해진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북중접경의 일선 초소에 1천명의 병력이 추가 배치됐다고 밝힘.

■ 中, '김정남 피살' 일부보도 삭제·차단…보도통제중(연합뉴스)

- 중국 언론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민감한 내용을 다룬 보도가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확인됨.
- 중국 당국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중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내부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북한 관련 민감한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15일 중국 관영 언론과 민영 언론 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김정남 피살과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와 피살 원인 등을 다룬 추측성 보도 등이 삭제되거나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됨.

2017. 2. 16.

■ 中, 김정남 피살사건에 '속앓이'…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과 달리 중국은 입장 발표를 유보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사건 발생지가 말레이시아여서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고 알려져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음.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최근 북중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국제 사회의 큰 관심사임.

■ 中외교부, 김정남 피살 파문에도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연합뉴스)

-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북중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함.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북중 관계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양국은 우호적인 교류를 해 온 전통이 있다”고 강조함.
- 경창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이 김정남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국정원 발표에 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음.

2017. 2. 17.

■ **中훈춘-北나진-中닝보 연결 육로-해상노선 재개(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활용하는 무역 물류 노선을 5년 만에 재개함.
-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돼 일상적인 무역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북한으로선, 나진항 활용 노선 재개를 반길 것으로 예상됨.
- 접경지역 관측통은 “자체 무역항이 없는 지린성이 나진을 결절점으로 하는 물류수송 루트를 만들어 북중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무역에도 뛰어 들었다”며 “경제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라고 말함.

다. 북·일 관계

2017. 2. 12.

■ **아베, 北 탄도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트럼프, 日 100% 지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함.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고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함.
- 아베 총리가 먼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함. 마이크를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힘.

2017. 2. 14.

■ **일본, 북한 미사일 방어 강화·상시요격 체제 추진(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상시요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NHK가 14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 부대신이 이끄는 ‘종합 기동 방위력 구축위원회’를 이달 중 가동하기 시작해 여름까지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 위원회에선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거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자위대의 상시요격 태세를 갖췄을 때와 미국의 최신 요격미사일 시스템 도입했을 경우 비용 대비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됨.

■ **아베, 한미일에 중국과도 연대해 北미사일 대응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이 잘 협력하고 한미일, 한미일중간 연대, 그리고 유엔의 장을 활용해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함.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나는 오카모토 미쓰나리(岡本三成) 공명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함.
- 이어 그는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담은) 유엔 안보리결의를 준수하도록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확실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2017. 2. 15.

■ **日관방 "김정남 피살, 일본 안보에 별다른 영향 없을 것"(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이 일본의 안보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김정남 피살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특이한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오늘 아침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합동정보회의를 열고 관계국과 연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나섰다”고 말함.

라. 북·러 관계

2017. 2. 11.

■ **주북 러 대사 “북한, 미국과의 양자대화 기대해선 안 돼”(연합뉴스)**

- 최근 들어 북한이 6자회담의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10일(현지시간) 밝힘.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외교관의 날’을 맞아 타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 측 파트너들은 6자회담 형식이 수명을 다했고 지난 몇 년 동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최근 평양에선 모든 한반도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 관계와 미국의 대북 적대·공격정책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보다) 북-미 양자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함.

2017. 2. 13.

■ **러시아 의원들, 北미사일 발사는 도전…유엔안보리 결의에 저촉(연합뉴스)**

- 러시아 의회 의원들도 북한의 새로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비난하고 나섬.
-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12일(현지시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행동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함.
-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도전”이라면서 “그러한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저촉되고 역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함. 그는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전력 강화 노선은 추가적 정세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러 외무부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발적 무시”(연합뉴스)**

- 러시아도 북한의 새로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비난하고 나섬.
- 러시아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에 대한 또 한 번의 도발적 무시로 평가한다”면서

- “이는 유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함.
- 외무부는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이 냉정함을 보이고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임.

2017. 2. 17.

■ 러 법원, 국경수비대원 공격한 北선원 2명에 2년6개월 징역형(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연해주 법원이 16일(현지시간)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공격한 북한 선원 6명 가운데 2명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함.
-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 연해주 인근 동해 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저인망 트롤선인 ‘대양 10호’가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됨.
-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던 중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음. 그중 1명은 이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2. 12.

■ 프랑스, 北 미사일발사 규탄…국제사회 단결대응해야(연합뉴스)

-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한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프랑스는 아시아-태평양 이 지역의 안보가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함.
- 프랑스 외무부는 이어 “프랑스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 연대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실전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체 없이 단결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2. 13.

■ 유럽, 北 미사일 발사 묵과 못해…국제사회 단호히 대처(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제재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
- EU의 외교담당 부처인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2321호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힘.
- EEAS는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대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완전하고 확인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미일, 유엔 안보리에 ‘北 미사일’ 긴급회의 요청…13일 열릴 듯(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함.
-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회의가 13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긴급회의…한국시간 14일 오전 개최(연합뉴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대응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긴급회의가 13일 오후 5시(현지시간·한국시간 14일 오전 7시) 열릴 예정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2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테러리스트로부터 중요한 건축물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함.
-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이 이번 발사를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됨. 기존에 나온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든 금지하고 있음.

■ 나토 사무총장 “북한,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해야”(연합뉴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함.

-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전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작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비롯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또 그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은 지역 안보과 국제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北, 국제기구에 ‘북극성 2형’ 발사 사전통보 안해(연합뉴스)

-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 관련 국제기구에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았음.
-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임.

2017. 2. 14.

■ 유엔총장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연합뉴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비핵화를 위한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아울러 국제사회가 단결된 모습으로 이 상황에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함.

■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만장일치 규탄…‘추가 중대조치 경고(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함.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함.
- 회의에 앞서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따른 안보리의 공식 대응임.

■ 우크라이나, 北탄도미사일 발사 비난…“핵·미사일도발 중단하라”(연합뉴스)

- 러시아와 대립하며 친(親)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옛 소련국가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비난에 동참함.
-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와 세계 안보 상황의 추가적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탄도미사일과 핵장치 실험과 관련된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힘.

■ 스위스 北대사, 미사일발사는 자위조치…안보리 규탄에 반발(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
- 한대성 주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자기 방어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수행한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적대 세력의 직접적 위협에 대항해 주권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함.
- 그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부는 최근 이뤄진 유엔 안보리의 성명과 우리에게 대한 모든 유엔 결의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강조함.

2017. 2. 15.

■ 北, 안보리 미사일 규탄 성명에 “전면 배격”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북극성 2형) 시험발사는 국가노선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공정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대변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이후 “여러 차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결심하시는

임의의 시각에 핵무력 고도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공식 천명하였다”고 강변함.

■ **英 외무부, 탄도미사일 발사에 北대사 불러 항의(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는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4일(현지시간)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힘.
-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전면 지지한다”며 “오늘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의 행동들은 안보리 결의안들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고 국제 안정의 위협이며 그런 위험한 행동들은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북한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들을 중단하고 대신 국제 사회와 협력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신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7. 2. 16.

■ **말레이 부총리 “김정남 시신, 철차뺐아 북한에 인도할 것”(연합뉴스)**

- 말레이시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철차에 따라 북한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힘.
-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숨진 김정남의 시신에 대해 “어떤 외국 정부라도 요청하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에 인도할 방침을 시사함.
- 다만 자히드 부총리는 “뺏아야 할 철차들이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어떤 외국 국가와도 양자관 관계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 2. 17.

■ **한·호주 등 중견 5개국 “北,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저해”(연합뉴스)**

- 한국이 참가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함.
-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 믹타 5개국 외교장관(호주는 차관보 참석)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믹타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거듭 안보리 결의

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함.

- 더불어 므타 5개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및 강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2. 12.

■ 北, 사거리 500km 미사일 1발 발사··ICBM 아닌 노동급(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오전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킴.
-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천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고 밝힘. 합참의 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급으로 추정한다”며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고,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

■ 北, 음속 10배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 발사··고체엔진 장착한 듯(연합뉴스)

- 한미는 북한이 12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중거리인 무수단급(사거리 3천~3천 500km 이상) 개량형으로 점정 결론 내림. 당초 노동급으로 추정했지만, 위성 분석자료 등을 추가로 정밀 분석한 결과 판단을 수정했음.
- 그러나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이런 분석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임.
-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평북 구성시 방천 인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노동급 미사일보다는 무수단급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北, 무수단 성능개량 지속··작년 6월보다 100km 더 날아(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500km 비행에 그쳐 예상했던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음.

-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기를 지난달 제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해왔음.
- 합참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추가 설명을 통해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무수단급(사거리 3천~3천500km 이상) 개량형으로 추정함.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550여km로 치솟아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됨. 비행 속도가 마하 10(음속의 10배)으로 노동미사일(마하 9.5)보다 빨라 무수단 미사일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임.
 - 그러나 500km를 날았다는 점에서 ICBM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음. ICBM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행 거리가 최소 무수단의 최대사거리로 보이는 3천500km 안팎을 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임. ICBM을 보유한 강대국 기준으로 보면 사거리 5천500km 이상이어야 ICBM으로 분류함.

2017. 2. 13.

■ 北,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 2형 발사 성공...새 핵전략무기(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이자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힘.
- 전날 발사한 비행 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 전략미사일이라는 주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분석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함.

■ 北미사일, 고체엔진에 100여대 발사차량...선제타격 어려워져(연합뉴스)

-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 추진 엔진을 장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킬 체인’의 효용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음.
-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 없는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은밀성이 뛰어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하면 발사 전 타격이 쉽지 않기 때문임.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3일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새 고체연료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함.

■ **北 중장거리탄도탄 ‘북극성 2형’이란?…신형 IRBM(연합뉴스)**

- 북한이 13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기종의 제원과 성능, 발사방식 등에 관심이 쏠림.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평북 방현비행장에서 발사한 비행거리 500km 미사일에 대해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탄”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지대지) 탄도탄으로 개발했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를 불과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설명함.

2017. 2. 14.

■ **北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준비에 5분…사정 최소 1200km(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시험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탄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존 실링 연구원이 말함.
-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인 실링은 13일(현지시간)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액체사전주입 등에 30~60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같이 설명함.
- 북극성 2형이 이같이 기동성, 생존성, 대응성 면에서 노동미사일에 비해 훨씬 고도화됨으로써 이를 탐지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그는 덧붙임.

■ **日방위상 “北발사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한 신형 가능성”(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14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체연료 엔진이 채용된 점은 탐지하기 어렵고 운반이 용이하다는 의미에서 일본에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지적함.
- 이나다 방위상은 그러면서 북한이 콜드런치(cold launch·냉발사체계) 방식으로 전날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거리는 3천~5천500km 정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아래 수준으로 분석함.

■ **中전문가 “북극성 2형, 북한 보유 탄도탄 중 실전능력 최고”(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시험 발사한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이 북한 탄도탄 중 실전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음.
- 14일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북극성 2형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개량형 IRBM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힘.
- 이 전문가는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북극성 2형은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 고체연료를 사용해 준비 시간이 짧다”고 소개함.

■ **美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새 성능’ 갖춘 것으로 평가(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2일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CNN이 정부 관계자들은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2명의 관계자들은 북한이 기존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육상에서 발사했으며, 서해 인근 발사장에서 발사해 이전 미사일 발사 때보다 비행거리가 더 길었다고 말함.
- 앞서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육상용으로 변형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보인다고 말함.

■ **국정원, 北미사일 89도로 발사…바로 쏘면 사거리 2천km 이상(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발사각도가 89도이고 평시 각도대로 쏘면 사거리가 2천km 이상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에 대한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에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됐지만 고각으로 안 쏘고 바로 쏘면 2천km 이상 간다”고 밝혔다고 이철우 정보위 원장이 전함.
- 이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낙하까지 13분이 걸렸다고 밝힌 뒤 “레이더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각 정보기관에 통보한다. 한미일이 영상자료 서치를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北 ICBM 수준은…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만 남았다(연합뉴스)**

-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발사 준비 작업이 마감단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수준에도 관심이 쏠림.
- 국방부는 14일 북한은 “대외적으로 ICBM 시험발사 준비완료 주장 등 전략적 도발을 위협하면서 미국 실행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북극성 2형’의 발사 ‘성공’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3~4월 중으로 ICBM급인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 또는 3단 추진체로 업그레이드한 ‘북극성 3형’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음.

■ **北 무한궤도형 이동발사차량, 주력전차 ‘선군호’ 개량(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 후 공개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북한군 주력전차인 ‘선군호’를 개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북한은 시험발사 하루 만에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북극성 2형 미사일이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후 발사되는 사진과 영상을 전격 공개하면서 발사대 차량을 ‘자체 기술’로 제작했다고 선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발사대 차와 탄도탄의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치켜세웠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2.12	美플린-김관진 전화통화...北도발 억제 모든 방안 모색(연합뉴스)	
	2.13	윤병세 "대북 선제타격론, 美행정부도 검토·분석할 것"(연합뉴스)	
	2.14	한미, 내달 연합훈련에 美전략자산 전개 합의(연합뉴스)	
		국방부, 올해 안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완료(연합뉴스)	
	한미일, 주중 독일서 3국 외교장관회의...북핵 공조(연합뉴스)		
	2.16	독일서 16일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김정남 암살 논의(연합뉴스)	
		윤병세, 한미외교장관회담서 美 분명한 대북 메시지(연합뉴스)	
2.17	한미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北비핵화" 원칙 확인(연합뉴스)		
	한미외교장관 '김정남 암살' 논의...매우 비상한 사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2.13		北도발로 사드배치 명분 약화에도 中 사드반대 강행 의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2.12	한미·한일 6자수석대표 긴급통화...北 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2.14	日 '독도 일본땅' 왜곡 교육 의무화...한일관계 냉각 불가피(연합뉴스)	
		日올림픽담당상, 평창올림픽 홈피 독도표기에 불만 표시(연합뉴스)	
2.17	日외무상,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소녀상 문제 논의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2.11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매우 훈훈했다... 좋은 미중관계 日에 혜택(연합뉴스)	
		트럼프, 中과 곧 '공평한 운동장'에 있게 될 것...무역조치 나서나(연합뉴스)	
		남중국해서 마주친 미·중 정찰기...화해 분위기 깰까 "상호자제"(연합뉴스)	
	2.12		미일정상회담 평가절하하는 中, 그러면서도 보도통제하는듯(연합뉴스)
	2.13	미국, 남중국해 인공섬 주위서 해군활동 강화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2.11	미일 안보공조·양자무역 논의...정상회담 주요 내용(연합뉴스)	
	2.13	北미사일 발사로 '영망된' 美日 정상 만찬장...긴박한 분위기 전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2.15		러 정찰선, 美영해 '기웃'...플린 낙마와 겹쳐 트럼프 설상가상(연합뉴스)
			러 하원외교위원장, 플린 사퇴는 미러 관계 훼손 목적 도발(연합뉴스)
		크림 싸고 실전...美 "러,우크라이나에 반환 기대" vs 러 "우리 영토"(연합뉴스)	
	2.16	미러 군 최고지휘관 16일 아제르서 현안 논의(연합뉴스)	
		美러 국방장관 날선 실전...양국 관계 개선 기대 흔들리나(연합뉴스)	
2.17	美러 외무 獨 본서 회담...트럼프 정부 출범후 첫 고위급 접촉(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2.12	中언론, '미국에 조공·중국에 오만' 아베 외교는 정치적 실수(연합뉴스)	
	2.13		日관방 "중국,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해야...中역할 매우 중요"(연합뉴스)
		中,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적용에 "심각한 우려" 표명(연합뉴스)	
	2.14	中해경선 4척, 중일 분쟁대상 센카쿠 주변 향해(연합뉴스)	
	2.15	中, 日센카쿠열도 영유권교육 의무화에 "도발 멈춰라"(연합뉴스)	
2.16	中인민일보 "日, 교과서 바꿀 수 있지만 역사 바꿀 수 없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2.14		러, 영유권분쟁 쿠릴열도 무인도에 러시아 이름 붙여...일본 항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2. 12.

■ 美플린-김관진, 전화통화…北도발 억제 모든 방안 모색(연합뉴스)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통화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에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앞서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관계 발전과 양국 안보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한 바 있음.

2017. 2. 13.

■ 윤병세 “대북 선제타격론, 美행정부도 검토·분석할 것”(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관심은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할까,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 윤 장관은 전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필요한 단계에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신호탄, 예고편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2017. 2. 14.

■ 한미, 내달 연합훈련에 美전략자산 전개 합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3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전개하기로 합의함.
-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지난해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KR·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데 이미 공감을 했다”면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전략무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함.

■ 국방부, 올해 안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완료(연합뉴스)

- 국방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대로 2017년 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에 한미동맹의 연속성 유지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로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함.
-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하고 있음을 미국 조야에 적극 설명,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효과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한미일, 주중 독일서 3국 외교장관회의…북핵 공조(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6~1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외교부 당국자는 “독일에서 열리는 다자회의(16~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및 17~19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독일 본에서 열리는 G20회의를 계기로 16~17일께 회동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짐.

2017. 2. 16.

■ 독일서 16일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김정남 암살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16~

- 17일)를 계기로 16일 오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힘.
-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새 행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윤병세, 한미외교장관회담서 美 분명한 대북 메시지(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선명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함.
- 주요 20개국(G20) 회의(16~17일)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 장관은 15일 본 현지 숙소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북한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계속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재확인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함.
- 윤 장관은 “이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공개 및 비공개로 한 내용이 있고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그것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2017. 2. 17.

■ 한미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北비핵화” 원칙 확인(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독일 본)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 공동성명은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힘.

■ 한미외교장관 ‘김정남 암살’ 논의…매우 비상한 사건(연합뉴스)

- 한미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양자 회담에

서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논의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 본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16~17일)를 계기로 본의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진행한 양자 회담에서 김정남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함.
- 당국자는 “두 장관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매우 비상한 사건이 있었다’며 김정남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소개함.

나. 한·중 관계

2017. 2. 13.

■ 北 도발로 사드배치 명분 약화에도 中 사드반대 강행 의지(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명분이 약화했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
- 사드배치 문제를 자국에 대한 핵심이익 침해로 보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여전히 사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별개의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배치의 정당성이 강화됐지만, 앞으로도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데 대체적인 무게가 실림.

다. 한·일 관계

2017. 2. 12.

■ 한미·한일 6자수석대표 긴급통화…北 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 외교부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긴급통화를 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김 본부장이 미국과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겐지 가나스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연쇄적으로 긴급통화를 했다면서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함.
- 한미, 한일 수석대표들은 또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올해 들어 최초로 감행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함.

2017. 2. 14.

- **日 ‘독도 일본땅’ 왜곡 교육 의무화…한일관계 냉각 불가피(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함.
 -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음.

- **日올림픽담당상, 평창올림픽 흥피 독도표기에 불만 표시(연합뉴스)**
 -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일본 올림픽담당상은 14일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가 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함.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라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참가하는 모든 나라와 지역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평창올림픽 조직위측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함.

2017. 2. 17.

- **日외무상,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소녀상 문제 논의할것(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독일 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16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소녀상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미래를 향해 양국 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소통을 꾀하겠다”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2. 11.

-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매우 훈훈했다…좋은 미중관계 日에 혜택(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날 첫 전화통화에 대해 “매우 훈훈했다”(very warm)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서로 매우 잘 지내기 위한 과정에 있다”면서 “이것(미중관계 개선)은 일본에 매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中과 곧 ‘공평한 운동장’에 있게 될 것…무역조치 나서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화 평가절하에 관해서는 내가 그동안 계속 불평을 해 왔는데 우리는 결국 아마도 공평한 운동장(경쟁의 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그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공평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남중국해서 마주친 미·중 정찰기…화해 분위기 깰까 “상호자제”(연합뉴스)**
 -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양국 정찰기가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사건과 관련해 양측 군대가 큰 충돌 없이 넘어간 것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며 화해 분위기로 돌아선 양국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과 중국의 정찰기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며, 양측 모두 과도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호 자제한 결과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함.

- 중국의 KJ-200 조기경보기와 미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는 지난 8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인근 국제 공역에서 305m 거리까지 근접했음.

2017. 2. 12.

■ 미일정상회담 평가절하하는 중, 그러면서도 보도통제하는듯(연합뉴스)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매체인 환구망은 사평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중국에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술수가 개재된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음.
- 신화통신은 “미일 양국이 동맹강화 등 성과를 거뒀다고하나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루지는 못했으며 여전히 양국이 협상에서 마찰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2017. 2. 13.

■ 미국, 남중국해 인공섬 주위서 해군활동 강화 추진(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 건설된 중국의 인공섬 주위에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미국 군사 전문매체 네이비 타임스는 미 해군 함정을 인공섬 주위에 증파, 중국을 점차 자극하는 방안을 해군과 태평양사령부 지휘부 차원에서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소식통은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중심이 돼 추진할 ‘항행의 자유’(FONOPS) 작전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용수자오<永暑礁>)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의 우디 섬(중국명 용흥다오<永興島>)에 새로 건설된 인공섬 12해리(22.2km) 안쪽을 미 해군 함정이 진입해 항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7. 2. 11.

■ 미일 안보공조-양자무역 논의...정상회담 주요 내용(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동맹과 안보 및 통상 협력 방안을 놓고 대화했음.
- 두 정상은 회담 후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미일 안전 보장조약 제5조 적용대상 확인, 미일 양자 무역협정 논의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2017. 2. 13.

■ 북미시일 발사로 '영망된' 美日정상 만찬장...긴박한 분위기 전환(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미·일 정상의 만찬 도중 보고돼 양국 안보관계자들이 자국 정상 주위에 몰려 사태를 보고하는 등 만찬장이 일시에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으로 전해짐.
- 만찬 도중 갑자기 관계자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양국 정상 주위에 측근들이 몰려 뭔가를 보고했는 가하면 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함. 참석자들에게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뭔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NHK가 13일 만찬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인을 인용해 보도함.
-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청해 기자회견에 동석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에 미국이 같이 하고 있다는 구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함. NHK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후 신속하게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본과 긴밀히 연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함.

다. 미·러 관계

2017. 2. 15.

■ 러 정찰선, 美영해 '기웃'...플린 낙미와 겹쳐 트럼프 설상가상(연합뉴스)

- 러시아 정찰선 한 척이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영해 근처를 순찰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해군이 추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잇달아 터진 '러시아 스캔들'로 골머리를 앓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
- 두 명의 미군 관계자는 미국 동북부 해상 근처를 기웃거리던 러시아 정찰선을 발견했다고 폭스 뉴스에 소개함.

- 정찰선은 델라웨어 주 연안에서 약 113km 떨어진 대서양 해상에서 시속 18.52km(10 노트)의 속도로 북진 중이었다고 한 관계자가 전함.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러 하원외교위원장, 플린 사퇴는 미-러 관계 훼손 목적 도발(연합뉴스)

- 러시아 의회 고위 인사가 러시아 측과 내통한 혐의를 받은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해임을 미-러 관계를 훼손하려는 도발이라고 비판함.
-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14일(현지시간) “플린 사퇴와 관련된 상황은 도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러 대화 채널 구축에 부정적 신호”라고 지적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함.
- 슬루츠키는 “플린이 일정한 압박 때문에 자진 사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퇴서를 수용했다”면서 “사퇴 사유가 된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은 통상적 외교활동이었다”며 플린을 두둔함.

■ 크림 싸고 설전...美 "러,우크라이나에 반환 기대" vs 러 "우리 영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힘.
- 이에 러시아는 크림은 자국 영토로 절대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고, 우크라이나는 환영 입장을 표시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슌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행동을 줄이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2017. 2. 16.

■ 미-러 군 최고지휘관 16일 아제르서 현안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군 수뇌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만나 군사 현안을 논의함.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을 만난다고 15일 밝힘.
- 던포드 합참의장실은 성명에서 “두 지휘관이 양국 군사 관계 현황, 오관과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회동은 최근 러시아군이 흑해와 미국 영해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사건을 잇달아

일으킨 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됨.

■ **美-러 국방장관 낯선 설전…양국 관계 개선 기대 흔들리나(연합뉴스)**

- 러시아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고조됐던 미-러 관계 개선 기대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낯선 설전(舌戰)으로 기 싸움을 벌였음.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러시아에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복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스스로의 기대에 대해 현실적이다”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러시아와 힘을 내세워 협상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함.

2017. 2. 17.

■ **美-러 외무 獨 본서 회담…트럼프 정부 출범후 첫 고위급 접촉(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회동함.
- 이날부터 이틀 동안 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두 장관이 G20 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틸러슨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보다 유화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대러 제재 해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미국이 당장 대러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없음을 분명히 함.

라. 중·일 관계

2017. 2. 12.

■ **中언론, ‘미국에 조공·중국에 오만’ 아베 외교는 정치적 술수(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중국에는 오만한 양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한 행동이 아니며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다고 비난함.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2일 사평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는 병적이라면서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총 한방 쏘지 않았고 중국의 군사력 건설은 국제정치의 정상적인 규율안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굴기에 부르르 떨고 있다고 지적함.

-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중국공포증은 다소 위장된 것이거나 국제정치의 통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목표와 관련있어 보인다고 신문은 비난함.

2017. 2. 13.

■ 日관방 “중국, 북한에 대한 압력강화해야…中역할 매우 중요”(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 이어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다양한 레벨에서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에 역할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함.

■ 中,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적용에 “심각한 우려” 표명(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함.
- 경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댜오위다오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관련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댜오위다오와 인근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였으며, 누가 뭐라 하든 이 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과 일본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잘못된 의견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2. 14.

■ 中해경선 4척, 중일 분쟁대상 센카쿠 주변 항해(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 4척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일본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 해상)에서 항해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함.
- 이날 오후 3시경 중국 해경국 소속 함선들이 센카쿠열도 구바시마(久場島) 남동쪽 33~35km 지점에서 항해해 일본 해상보안본부가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함.

2017. 2. 15.

■ 中, 日센카쿠열도 영유권교육 의무화에 “도발 멈춰라”(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함.
- 경쑹(耿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영유권 교육 의무화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경쑹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부터 중국 고유 영토이고, 영토 주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이는 변함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2017. 2. 16.

■ 中인민일보 “日, 교과서 바꿀 수 있지만 역사 바꿀 수 없어”(연합뉴스)

-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역사는 바꿀 수 없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16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함.
-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2. 14.

■ 러, 영유권분쟁 쿠릴열도 무인도에 러시아 이름 붙여...일본 항의(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의 이름이 없던 무인도 5개에 옛 소련과 러시아 정치가, 군인 등의 이름을 붙였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함.
- 러시아는 2010년 쿠릴열도의 무인도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으나 이후 명명이 진척되지 않았었다. 아사히는 이번에 이름을 붙인 무인도들은 모두 매우 작은 섬으로 이들 섬에 대한 명명은 러시아의 지배강화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함.
-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쿠릴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작년에 4개 섬 가운데 가장 큰 2개 섬인 이투롭과 쿠나시르에 각각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2.12	매일 100명 혼자 모내기...악몽 같았던 北 강제노동(연합뉴스)
	2.14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은 집단학살...ICC에 감정은 또 고발(연합뉴스)
		영 정부, 북 마식령 스키장 어린이 강제노역(자유아시아방송)
	2.15	휴먼라이츠워치, 유엔에 북한 아동 인권유린 실태 제출(미국의소리)
	2.16	中매체, 北미사일 도발·김정남 피살에도 인도적 지원 필요(연합뉴스)
2.17	러시아 건설 현장서 또 北노동자 2명 압사 사고(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2.14	"아버지 돌려달라"...KAL기 남북피해자 가족, 국제청원(연합뉴스)
대북지원	2.11	美, 유니세프 통한 대북 수해지원 최종 서명(연합뉴스)
	2.13	오바마 정권 마지막 대북 수해지원은 미·중 협상 결과(연합뉴스)
	2.14	핀란드 NGO, 북한서 85만 달러 규모 지원사업(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2. 12.

■ 매일 100평 혼자 모내기...악몽 같았던 北 강제노동(연합뉴스)

- “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10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 사무국을 찾은 전효빈(16·여), 김은솔(18·여) 두 학생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음.
- 각각 2013년, 2015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유년기, 청소년기를 노예나 다름없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보내야 했음.
- 두 사람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등의 도움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와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실에 경험을 진술함.
-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어린이들이 처참한 상태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함.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북한을 “강제노동, 성매매 피해 남성·여성·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14년 연속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음.

2017. 2. 14.

■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은 집단학살...ICC에 김정은 또 고발(연합뉴스)

-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1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과 그 가족에 대한 반인륜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함.
- 작년에 북한 해외근로자 처우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을 근거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탄압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ICC에 접수된 적은 있지만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을 ‘집단학살’로 규정해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이날 ICC에서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뒤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ICC 검사는 고발장과 접수서류를 검토해 대략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함.

■ 영 정부, 북 마식령 스키장 어린이 강제노역(자유아시아방송)

- 평양주재 영국 대사관 관리들이 영사적 목적으로 방문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어린이 강제 노역을 실태를 목격했다고 영국 외무부 조이스 애널레이(Joyce Analay) 차관이 지난 13일 밝힘.
- 애널레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 대해 평양주재 영국 대사관이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는 데이빗 엘튼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나왔음.
- 애널레이 차관은 이날 서면답변에서 강제 노역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일종으로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재차 강조함.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내외에서 주민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북한 정부를 규탄했다고 그는 덧붙임.

2017. 2. 15.

■ 휴먼라이츠워치, 유엔에 북한 아동 인권유린 실태 제출(미국의소리)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예비심의회에 제출한 북한 보고서를 13일 공개함.
-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 6일에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비심의회를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의 북한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
-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어린이 등 탈북자 1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내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힘.

2017. 2. 16.

■ 中매체, 北미사일 도발·김정남 피살에도 인도적 지원 필요(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로 북핵 문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의 죽음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서구 매체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유심히 보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고삐를 당기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보장은 언급이 없다”고 지적함.

- 이 매체는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 등의 지지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11월에 추가 결의가 나왔으나 중국으로선 이런 제재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대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

2017. 2. 17.

■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또 北노동자 2명 압사 사고(연합뉴스)

-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15일 저녁(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니즈니노브고로드시(市)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2명이 사고로 숨졌다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지부가 16일 밝힘.
- 수사당국은 “니즈니노브고로드시 소르몹스코예 대로에 있는 5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38세 남성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55세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북한 노동자들”이라고 소개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2. 14.

■ “아버지 돌려달라”...KAL기 납북피해자 가족, 국제청원(연합뉴스)

- 48년 전 납북된 대한항공(KAL) YS-11기 탑승자의 가족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임.
- KAL기 미귀환자인 황원(납북 당시 32세)씨의 아들 황인철(50)씨와 탈북민 지원 비영리단체인 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TNKR)는 14일 오후 서울 TNKR 사

무실에서 황원씨의 송환을 위한 온라인 청원 발족 행사를 열 예정임.

- 이들은 국제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송환 청원서를 올려 KAL 기 납북사건을 알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동참 서명을 받을 예정임.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이 이날 행사에서 첫 서명자로 나설 예정임.

5. 대북지원

2017. 2. 11.

■ 美, 유니세프 통한 대북 수해지원 최종 서명(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북한 수해지역에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나지와 메키 유니세프 뉴욕본부 공보담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합의서는 미국이 대북 수해 복구 지원금 100만 달러(한화 11억5천만원)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전함.
- 유니세프는 이 자금으로 북한 내 학교와 유치원, 양육원, 병원 등 20곳의 어린이 1만여 명에게 식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7. 2. 13.

■ 오바마 정권 마지막 대북 수해지원은 미·중 협상 결과(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승인한 대북 수해지원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따른 것이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한·미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미국 정부가 작년 북한 북부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미국이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약 11억5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2017. 2. 14.

■ 핀란드 NGO, 북한서 85만 달러 규모 지원사업(연합뉴스)

- 핀란드 최대 비정부기구(NGO)가 올해 북한에서 농업과 의료 분야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핀란드 NGO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 International)’는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올해 85만 달러(9억7천만 원)를 투입해 북한에서 감자 생산을 늘리고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단체는 평안북도 정주시와 강원도에서 26만 달러(2억 9천만 원)를 들여 씨감자 개발 사업을 벌인다고 “감자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비료 등을 지원하고 보관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감자 보관장소도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함.